

동박업계, ESS용 제품 비중 확대… 실적개선 속도 낸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성장세 정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돌파구 마련
ESS 분야 주목… 공급망 재편 나서

동박업계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으로 사업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중심이던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AI 데이터센터와 ESS 확산으로 향후 ESS용 동박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기업들이 생산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새로운 주력 분야로 보고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사들이 ESS 사업을 본격 확대함에 따라 관련 동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ESS용 동박 출하량은 내년 약 2.5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익산공장 전경.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터터바나 전지박 공장 전경.

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내년 하반기 ESS 라인 가동 예정인 북미 OEM을 대상으로 ESS용 제품 승인을 진행 중이며 라인 가동 시점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주요 고객사의 대응량 ESS향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및 리튬인산철(LFP) 라인 전환이 본격화함에 따

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ESS 매출 비중이 내년 2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배터리용 동박(전지박) 생산라인을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에 맞춰 전환하고 있다. 전기차 중심에서 벗어나 비전기차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배터리 셀 제조사들의 전략과 유사

한 행보로 분석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유럽 주요 K배터리사에 ESS용 전지박 공급을 시작했으며 미국에서도 현지 주요 배터리업체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헝가리 공장을 중심으로 유럽 주요 배터리 생산 거점을 공략하며 ESS 시장 확대에 맞춰 현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ESS 시장은 지난해

19.1기가와트시(GWh)에서 2030년 83GWh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유럽 내 공급망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SKC도 ESS용 제품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다. SKC는 3분기 LFP 기반 ESS향 동박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급증한 1540톤을 기록했다. 전체 판매 중 ESS향 비중은 18%로 확대됐으며 4분기에는 캐나다향 신규 물량 출하로 ESS향 판매량이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ESS 시장 확대로 북미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산업단지와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 업체들은 ESS 대응 제품을 확대하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단기적인 실적 개선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KDDX 사업, ‘상생안’ 급부상

(차기구조합)

방사청, 분과위에 KDDX 안전 상정 예정
업계, HD현대·한화오션 동시 참여 거론
전문가들 “2년째 표류, 결단 필요한 때”

2년째 표류 중인 7조8000억원 규모의 차기구조합(KDDX) 사업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수의계약방식을 고수하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동시 건조 참여를 골자로 한 ‘상생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14일 열리는 제132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 KDDX 상설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은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 핵심이 될 6000톤(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오는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장기화한 업계내 갈등 속에 방사청은 올해 3·4·8·9월 분과위에서 수의계약 안전을 상정하려 했지만 민간위원 등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업계 안팎에서는 두 조선소가 함께 건조에 참여하는 상생안이 현실적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 분과위에서도 두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연장 논란까지 겹치면서, 물량을 분담해 사업을 재개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국내 최초 독자 설계 잠수함인 장보고-III급에서도 양사가 협업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전례가 있으며, 현재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원팀으로 참여 중인 점, 향후 핵추진잠수함 사업에서도 공동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당초 사업 방식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가 논의됐다. 그러나 개념설계를 맡은 한화오션과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의 입장차가 커지며

사업이 표류했다. 한화오션은 보안감점을 근거로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6조를 근거로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방위사업청은 수의계약 방식을 밀어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상생 또는 경쟁입찰 전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수의계약 고집은 국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며 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렸다.

결국 논의의 무게중심은 상생안으로 옮겨갔지만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기술 영역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계약이 중복되면 일정·비용 조율도 복잡해진다. 기술 유출 위험과 관례 훼손 논란도 뒤따른다. 다만 방위사업관리규정은 법령이 아닌 내규로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임의 조항이라는 점에서 해석 차가 크다. 대기업 간 ‘상생’이라는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7일과 10일 열린 민간 분과위원 설명회에서는 방사청이 사실상 수의계약안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입찰안은 보안감점 연장으로 한화오션이 유리하다는 점, 상생안은 양사 간 합의 미도출과 담합 우려가 이유로 거론되며 구체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업 방식 선택이 아니라 장기 지연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승자독식으로 가면 한쪽으로 치우쳐 K-해방방산 생태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장보고-III도 공동설계를 했듯 협업은 가능하고,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2년 가까이 표류한 사업을 결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꼭 필요한 것들 하나로 담다!

한화생명 하나로H종신보험(무)

미래를 위한 대비부터 오늘을 지켜낼 여유까지
꼭 필요한 것들만 하나로 담은
하나로H종신보험이 당신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안심케어

가족우산

마음든든

사망보장

간편가입

평생보장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의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이후 지급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5-06622호 (2025-09-30 ~ 2026-09-29) 준법감시인 확인필 : CS 25-09-058

홈페이지 : www.hanwhalife.com 상담 번호 : 080.365.6363